

# 李대통령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

### 진보당, 통합특별시장 단일후보 이종욱 추대

### 삼성 용인 반도체단지 호남 이전 추진

진보당이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김선동 전 국회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단일 후보에 이종욱 후보를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실력과 경륜을 쌓았고 지금 나선 다른 후보들 못지않게 잘 해낼 자신이 있지만 이종욱 후보야말로 전남·광주통합의 새 시대, 호남의 전성기를 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다.

진보당은 오는 19·23일 광주·전남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이종욱 후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이종욱 후보는 “김 전 의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대담한 결단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김 전 의원의 뛰어난 정치력과 응징력을 발판으로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호남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 비전으로 ‘용인 삼성반도체 산업단지 호남 이전’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용인 삼성반도체 산업단지는 아직 착공 전 단계로, 지금이 호남 이전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와 여당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호남 이전을 위한 공개 토론회와 전남광주특별시장 임명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변은진 기자

### 주철현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10일 “통합 재원을 활용한 복지 공약으로 ‘찾아가는 농어촌 건강운동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특히 농어촌과 도서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병원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형 건강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근력 강화 운동과 낙상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김진수 기자



[재경부]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회의서 중동궤 경제 여파 점검

#### “석유 최고가격제,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 검토 각종 정책 세부 지침 제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진짜 실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각종 정책을 두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이미 열흘 이상 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을 감안해야 한다”며 “실제 생산원가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정해진 최고가격을 상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최고가격제 외에 물가안정법에 따른 추가적 조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가격 및 물량 통제 등도

민약의 경우에 대비해 검토해두라”고 주문했다.

유류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양극화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겠

느냐”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혹은 유류세를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을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식으로 정책 수단을 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차등 지원 시 소득 재분배 및 소비 진작 효과, 그만큼 유류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물가 관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얼마나 총 돌하는지 국무위원과 참모들에게 세세히 물어 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항력으로 찾아온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이겨 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다. 소위 기득권도 저항하기 쉽지 않게 된다”며 “그래서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건 중인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 “거대 양당 기득권, 민주당 호남 독점 타파”

### 혁신당 등 개혁진보 4당 국회 천막농성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비례 확대 촉구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타파와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일당 독점 종식을 주장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조국혁신당 김덕수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개혁진보 4당이 국회 본청 앞을 ‘정치개혁 광장’으로 선포하고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라는 암울한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특히 호남은 민주당의 일당 독점으로 정치적 경쟁이 소멸하고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6명의 무투표 당선 사태를 “호남 민주주의의 참담한 성

적표이자 구조적 적폐”로 규정하며 “위헌적인 구 편차와 무투표 당선 방치가 심각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진보 4당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

표 확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단순한 소수 정당의 생존 차원이 아니라,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의석에 반영하고 일당독점의 폐해를 끊어내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게 개혁진보 4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와 관련해서도 선거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다당제적 의회 구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주당이 기득권을 위해 위헌적 선거 제도를 방치하고 개혁 입법을 미루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3월은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거대 양당은 유불리를 따지는 ‘깎깎이 선거구 확장’과 ‘2인 선거구 쪼개기’ 구태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